

## 26대 총학 장호철(정), 김정현(부) 당선

사대, 예대, 공대 학생회도 선출돼

기호 1번 '소통' 선거운동본부의 장호철(경영 4) 총학생회장 후보와 김정현(산공 3) 부총학생회장 후보가 기호 2번 '동심' 선거운동본부를 제치고 제26대 총학생회로 당선됐다. 또한 단일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사회과학대 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예술대학 학생회 선거에 나선 후보들 역시 모두 당선됐다. ▶관련기사 2면

이번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는 지난 3월 23~24일 양일에 걸쳐 경선으로 진행됐으며 총 재적인원 6천9백3명 중 3천6백8십1명이 투표에 참여해 53.32%의 투표율을 보였다. 기호 1번 소통 선거운동본부는 이번 선거에서 1천9백55표(51.75%)를 받아 기호 2번 동심 선거운동본부의 1천6백1표에 304표 앞섰다. 따라서 2010년 우리대학을 이끌 총학생회로 소통 선거운동본부가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는 무효 175표(4.75%)와 선거인명부의 오차 39표를 보였다.

총학 선거와 같은 날 진행된 사회과학대, 공과대학, 예술대학의 학생회도 꾸려졌다. 사회과학대에서는 '동심' 선거운동본부의 박미성(행정 3) 정후



▲지난 25일 자정, 중선관위 위원들이 총학 선거 투표 마감 후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보, 이재필(경제 2) 부후보가 나와 선거를 진행했다. 사회과학대의 투표에는 총 재적인원 2천8십3명 중 1천4십9명이 참여해 50.36%의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찬성 849표(80.93%), 반대 111표(10.58%), 무효 89표가 나와 제14대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박미성 정후보, 부학생회장 이재필 부후보로 각각 결정됐다.

제12대 공과대학 정부학생회장 선

거에는 '너와 내가 하나되는 YOU&I' 공과대학 선거운동본부의 김용주(정통 4) 정후보와 김성길(정시 3) 부후보가 출마했다. 이들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는 찬성 822표(83.88%), 반대 78표(7.96%), 무효 58표를 얻어 김용주 정후보와 김성길 부후보가 각각 제12대 공과대학 정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공과대학에는 선거인원 1920명 중 투표인원 1043명이 참여해

54.3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예술대학 정부학생회장 선거에는 김현중(인테리어 4) 정후보와 박철중(시각 4) 부후보가 출마해 찬성 665표(83.5%), 반대 76표(9.5%), 무효 51표로 2010년 예술대학 정학생회장 김현중 정후보, 부학생회장 박철중 부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예술대학 선거에는 예대 선거인원 1550명 중 투표인원 796명이 참여해 51.3%의 투표율을 보였다.

한편 각 학부·학과의 정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됐다. ▲영어영문 우정규(영어영문 4) 정학생회장, 정용택(영어영문 2) 부학생회장, 임이현(영어영문 2) 부학생회장 ▲경영학부 전계성(경영 3) 정학생회장, 황보연(경영 2) 부학생회장 ▲정보통신학과 김태성(정통 2) 정학생회장, 윤상진(정통 2) 부학생회장 ▲기계시스템학과 임준(기계 2) 정학생회장, 김지훈(기계 2) 부학생회장 ▲컴퓨터공학과 이명복(컴공 2) 정학생회장, 김영철(컴공 2) 부학생회장

취재부



2010년 JANUS SEMINA 지난 26일 미래관 DLC에서 아틀리에 뷰티아카데미에서 주최하고 뷰티예술대학원에서 후원한 '형광바디아트(U,V), 메이크업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형광바디아트에 대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명하 기자 kmh77@hansung.ac.kr

## 잡지, 학술DB 온라인으로 보세요

학술정보관은 이번 학기부터 모아진(Moxine) 전자잡지 서비스와 로앤비(LaVnB) 학술DB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미 학술정보관은 온라인 상의 E-Resource를 통해 다양한 저널과 책들을 제공해왔다. 연속간행물실에서 과월호 잡지를 대출할 수 있지만 소장권수가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잡지를 볼 수 없었다. 전자잡지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학교에서 소장하지 않는 다양한 잡지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다. 4월부터는 전자잡지 출력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월 학생은 "다양한 전자잡지를 일일이 살 필요가 없이 금전

적,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다"며 전자잡지 서비스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로앤비는 전문 법률 뿐 아니라 각종 생활법률을 찾아 볼 수 있는 유용한 학술DB다. 하숙집을 구하려다 빈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처럼 법학과 학생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법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상황의 대처방법을 자동 Q&A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민(학술자료팀)팀장은 "법령 및 판례 뿐 아니라 관련 E-book도 풍부하게 제공해 행정학과, 부동산학과, 무역학과 학생들의 학업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이외에도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는 E-Resource라는 콘텐츠가 있다. 여기에서는 원서를 포함해 16만 5백여권에 달하는 E-book을 대출할 수 있다. 전자책은 대출과 반납도 간단하다. '대출하기'를 클릭해 대출된 전자책은 '내 서재' 코너에 저장되어 PC상에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전자책은 일반대출도서와 같이 연장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날짜에 자동적으로 반납되므로 직접 갔다 주는 불편함도 없다. 단, 일반도서와 같이 보유한 카피본 수에 따라 (2~4권) 대출 중인 책은 그 이상 볼 수 없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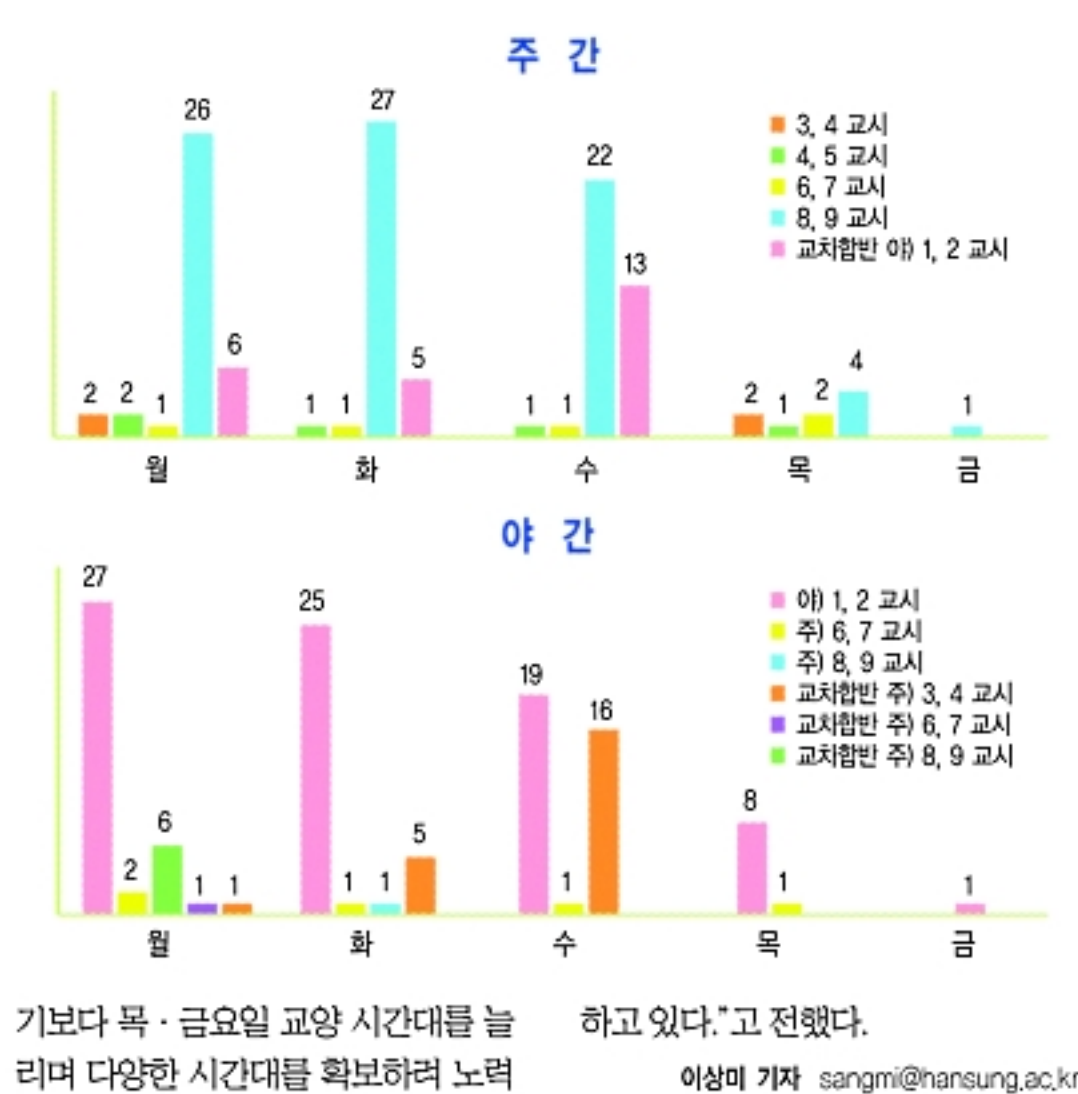
## 교양과목, 특정 요일·시간 집중 개설로 선택의 폭 좁다!

본지 조사 결과, 우리학교 교양과목이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개설되어 있어 학생들의 교양과목 선택의 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듣고 싶은 교양과목을 모두 들을 수 있는 '행운아'는 드물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시간대가 서로 겹쳐 하나를 포기해야 하거나, 학점을 채우기 위해 관심 없는 과목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차명규(역사 4) 학생은 "2학년 때 6·7·8교시에 전공 지정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8·9교시에 거의 풀려있는 교양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 주초에 대부분의 교양과목이 풀려있는 것도 문제다. 모든 요일에 골고루 분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지연(경제 3) 학생은 "아간 3·4·5교시에 전공수업이 많은 아간학부의 특성을 고려해 교양 교차반을 많이 개설해 주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학교는 1학기 시간표를 전 해 11월에, 2학기 시간표는 5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한다. 학사지원팀에서 교양과목 지정시간을 먼저 확보해 두면 각 과에서 이를 고려해 적절한 시간에 전공수업을 배정하는 식이다. 신지영(학사지원팀)팀장은 "1학년은 교양필수와 핵심교양이, 2~4학년은 교직과 일반교양, 전공과목 시간표가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강의실 부족과 교수의 개인사정 등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키기 힘들다. 8·9교시에 대다수의 교양과목이 풀려있는 이유 역시 수많은 전공시간과 겹쳐지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목·금요일 등 주말로 갈수록 교양시간대가 없는 데 관해서는 "목·금요일에 상대적으로 강의실이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요일에 교양을 신청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 거의 폐강되곤 한다. 그러나 지난 학



기보다 목·금요일 교양 시간대를 늘려 다양한 시간대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학교 복지의 사각지대 놓인 '휴학생'

휴학생은 학교시설을 온전히 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학술정보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싶으면 예치금 5만 원을 내면 되지만 예치금을 냈다고 재학생과 모두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출 가능 권수가 다르고 예약이 불가능하며 갺신은 학술정보관 Q&A 게시판이나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 정기간행물 대출도 불가능하다. 노트북 대여 및 프린

트 출력도 할 수 없다. 김현도(한국어문 3)학생은 "휴학 중에도 자주 이용했는데 책을 대출하려면 예치금을 내야 하는데 갺신도 인터넷으로 불가능해 차별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내은 등록금이 있는데, 휴학했다는 이유로 우리 대학과 관계없는 외부인이 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우용(무역 3)학생은 "전 학기까지 낸 등록금이 있기 때문

에 현재 휴학생이라도 우리 대학 학생으로서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면 계속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박용훈(무역 3)학생은 "휴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불안정한 신분이다. 책이나 노트북을 빌려갔다 자퇴를 하면 어떻게 하나. 시설을 관리에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한성대 신문사 웹소식지 및 홈페이지 객원기자 모집

**모집분야** : 한성대신문사 웹소식지 및 홈페이지 객원기자

**모집인원** : 1명

**모집기간** : 지원접수-2010년 3월 2일~31일

면접-2010년 4.1

발표-2010년 4.2

접수처-press@hansung.ac.kr


**모집자격** : 웹에디터(나모웹에디터, 드림위버 등 포함)가능자, 이미지 툴(포토샵 등)가능자 우대

※지원서 첨부  
한성대 신문사(http://news.hansung.ac.kr)공지사항 참조

지금 도전 하세요!!

한성대 신문사 객원기자가 되면

- 초기 웹소식지 제작비 지급 및
- 오벌 제작비가 지급 됩니다 (협의 필요)
- 자택근무입니다



# 사대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이 든다”

## 예대 “정이 있는 예대 만들것”, 공대 “재미있는 공대 만들것”

지난 3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선거에서 사회과학대(이하 사대), 공과대학(이하 공대), 예술대학(이하 예대)의 학생회 선거에 참가한 후보자 모두 당선됐다.

2010년 새롭게 사회과학대를 이끌어갈 학생회 대표는 박미성(행정 3) 정학생회장, 이재필(경제 2) 부학생회장 등이 맡게 되었다. 박미성 정학생회장은 “1년 동안 여러 학우들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학생회를 만들겠다”며 당찬 포부를 내세웠다. 그는 “자보와 온라인 성명서를 통해 학교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애쓰겠다. 학교측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총학생회와도 협력할 것이다. 또한 과끼리 단합하는 것도 주요 공약사항이다.”고 말했다.

사대 학생회는 특히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한다. 그는 “홈페이지 열어 학생회의 일을 알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이다. 소식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참여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물함 확충도 약속했다.

박미성 정학생회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지난 선거보다 더욱 진지하게 노력했다. 당선되어 기쁘기보다 이제 시작이



▲왼쪽 박미성 사대 학생회장 오른쪽 이재필 사대 부학생회장

라는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필 부학생회장은 “낮은 학년임에도 이렇게 큰 자리를 맡게 되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잘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0년 새롭게 예대를 이끌어갈 학생회 대표는 김현중(인테리어 4) 정학생회장, 최윤정(사각 4) 부학생회장이 맡게 되었다. 김현중 정학생회장은 “예대에서 각 학과별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른 단대에 비해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 눈에 보이는 불편사항에 대한 목소리가 많다. 예대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발전하는 학생회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또 “진료신청의 문제와 노후된 기자재 보충, 각 학과실 사용문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왼쪽 김현중 예대 학생회장 오른쪽 최윤정 예대 부학생회장

그는 “예대는 특성상 각 학과마다 개인 작업분량이 많아 크기는 각 학과, 작게는 학생 개인 간의 결속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작게는 예술대 안에서, 크게는 다른 단대나 소통할 수 있는 축제나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정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예대로 만들고 싶다. 예대의 더 나은 2010년을 위해 정말 노력하는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공대에서 진행된 선거에서는 제12대 ‘너와 내가 하나되는 YOU&I’ 공대 선거운동본부의 김용주(정보 4) 정학생회장, 김성길(정보 3) 부학생회장이 뽑혔다. 김용주 정학생회장은 “어떤 단대보다도 재미있고 믿을 수 있는 공과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8개의 과가 있는 공과가 하나가 될



▲왼쪽 김용주 공대 학생회장 오른쪽 김성길 공대 부학생회장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김성길 부학생회장은 “(우리들) 믿고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에 맞는 공과학생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당찬 소감을 전했다.

김용주 정학생회장은 “게릴라식 이벤트 사업 실시, 공학관 CCTV 확충, 휴게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다”며 “게릴라식 이벤트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비밀이지만 공학관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을 습격 한 뒤 무언가를 하고 1등에게 상품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과대학에서는 ‘1Qb4’ 체전, 축제를 비롯 공대 Self인쇄소 me2Day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취재부

# 24일 긴급 동아리 대표자 회의 열려

## 공문서 위조 불명에 RCY 강등 결정

지난 24일 탐구관 204호에서 허위 보고서 사건으로 논란이 된 RCY 동아리의 징계에 대한 긴급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 동아리 연합회 회장단의 심의 결과는 ‘RCY 동아리의 강등 혹은 제명’이었다. 이 사항에 대해 27개 동아리 장들의 투표 결과 RCY의 강등이 결정되었다.

실적 보고서에는 2009년 10월 24일 ‘국제 인도법 모의 재판 경연대회’에 4명이 참가했다고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달 31일 ‘일일 형제되기 행사’의 결과에도 5명이 참가했다고 명시되었으나 RCY 협회에 확인 결과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해 동년 회의 제 5부 집행국 및 회장단 제 1장 4조 11항에 근거해 동년 회장단이 징계 상황에 대해 결정하게 되었다.

# 교내서점, 전공서적 현금구입시 3% 쿠폰 제공

우리학교 교내서점은 이번 학기부터 전공서적에 한해, 현금구입시 3%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쿠폰은 교내서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김홍국(정보 1) 학생은 “(전공서적)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번에 전공 책을 샀는데 4만 8천원, 5만 원이나 했더니 ‘구입해야 할 전공 책이 많지만 너무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취재부

지난 24일 탐구관 204호에서 허위 보고서 사건으로 논란이 된 RCY 동아리의 징계에 대한 긴급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 동아리 연합회 회장단의 심의 결과는 ‘RCY 동아리의 강등 혹은 제명’이었다. 이 사항에 대해 27개 동아리 장들의 투표 결과 RCY의 강등이 결정되었다. 실적 보고서에는 2009년 10월 24일 ‘국제 인도법 모의 재판 경연대회’에 4명이 참가했다고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달 31일 ‘일일 형제되기 행사’의 결과에도 5명이 참가했다고 명시되었으나 RCY 협회에 확인 결과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해 동년 회의 제 5부 집행국 및 회장단 제 1장 4조 11항에 근거해 동년 회장단이 징계 상황에 대해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일은 과민증(우울 3)학생이 18일 동아리 연합회에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현재 활동이 전무한 RCY 동아리가 매년 동아리 평가에

# 교내서점, 전공서적 현금구입시 3% 쿠폰 제공

우리학교 교내서점은 이번 학기부터 전공서적에 한해, 현금구입시 3%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쿠폰은 교내서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김홍국(정보 1) 학생은 “(전공서적)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번에 전공 책을 샀는데 4만 8천원, 5만 원이나 했더니 ‘구입해야 할 전공 책이 많지만 너무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과민증(우울 3)학생이 18일 동아리 연합회에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현재 활동이 전무한 RCY 동아리가 매년 동아리 평가에

회의에 참석했던 한 동아리회장은 “방송 동아리 평가 때 이 사실을 왜 몰랐나. 동아리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성스런(기계 2) 동년 회장은 “실적 보고서가 사실이란 전제 하에 모든 평가가 이루어진다. 보통 관련 협회에 전화까지 걸어 사실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강등이나 제명은 과하게 아닌가 한다. 징계 방법에 대해 회장단 외에 다른 동아리외도 논의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에는 “이는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의거한 결과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동아리 평가에 대한 징정성 여부는 해결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교내서점, 전공서적 현금구입시 3% 쿠폰 제공

우리학교 교내서점은 이번 학기부터 전공서적에 한해, 현금구입시 3%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쿠폰은 교내서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김홍국(정보 1) 학생은 “(전공서적)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번에 전공 책을 샀는데 4만 8천원, 5만 원이나 했더니 ‘구입해야 할 전공 책이 많지만 너무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취재부

# ‘소통’ 총학생회 “2011년 등록금 동결 이뤄내겠다”

작년 2차례에 걸쳐 보결된 총학생회의 자리가 ‘소통’ 선거운동본부의 장호철(경영 4)총학생회장, 김정현(산공 3)부총학생회장에 의해 채워졌다. 이들은 지난 3월 23일과 24일에 이뤄진 선거에서 ‘동심’ 선거운동본부를 304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학생과 많이 소통하는 학생회가 되겠다”며 “학생회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김정현 부총학생회장은 “선거 공약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주의에서 느낀 불만과 불편함을 씻어 주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부총학생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소통’ 총학생회는 크게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등록금 동결 ▲장학금 증액 ▲운동장 차량 진입금지 ▲수강신청 개선 ▲졸업 유예 제도 시

행 ▲취업관련 강의 증설 ▲분실문 센터 설치 등이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4월에 등록금 원가 공개가 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와 작년 예산을 비교해 동결을 해도 충분히 운영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연도)등록금 동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과내에서 수석은 해도 100%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또 100% 받을 수 있는 한성 디지털탈린트 장학금의 경우 그 자격이 기준이 너무 높아 장학금 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며 “한성 디지털탈린트 장학금의 기준을 완화해 과에서 공부를 잘하면 등록금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학교는 크거나 인지도 면에서 크게 내세울 게 없는 게 현실이다”며 “하지만 (학생들이)우리학교를 다니기 좋은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26대 ‘소통’ 총학생회 당선자 장호철(왼쪽), 김정현

그런 캠퍼스를 만들고 싶다”고 희망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리플렛 하단의 작은 공간을 마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4월쯤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요구를 만들어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취재부

# 학복위, “보드게임 한 판 어때요?”

학생복지위원회는 이번 학기부터 학생들에게 보드게임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 정지은 부위원장은 “학복위 선거를 준비하다가 타대의 공약 중 학우들에게 보드게임을 대여한다는 정보를 알고 선거 공약으로 준비해

# 학복위, “보드게임 한 판 어때요?”

추진하게 되었다”며 “현재 ‘할리갈리’와 ‘다빈치코드’ 게임이 가장 인기를 끈다”고 말했다. 보드게임은 1인당 3시간까지 빌릴 수 있으며 초과할 시 500원 벌금이 부과된다.

이혜진기자 odory11@hansung.ac.kr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기간 연장 안내문

서울시 보건 정책과 -6811[대학생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안내]호에 따라 2010. 02. 22 ~ 03. 05 까지 우리구 소재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나, 접종률이 매우 저조하여 아래와 같이 신종플루 예방접종 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학우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접종일시 : 2010년 03월 22일 (월) ~ 03월 31일 (수), \*금기사항 :  
오후01시~오후05시  
1. 발열 중인 자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 상담 필요)  
2. 기타 감기, 호흡기계의 질환이 있는 자  
3. 계란, 계육 그 외의 닭 유래의 것에 과민증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자  
4. 본제의 접종에 의해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5. 접종 전 1년 이내에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인자  
접종비용 : 무료  
접종대상 : 우리구 소재 대학(원)생  
접종장소 : 성북구 보건소 예방접종실(1층)  
접종문의 : 예방접종실 T. 920-1936~8  
\*찾아오는 길  
버스노선 : 월곡역, 성북보건소 하차  
120, 148, 163, 1017, 1111, 1113  
지 하 철 : 6호선 월곡역 하차 2번 출구

- 성북구보건소장 -

# 2010년 향방기본훈련 참석 안내

- 1. 일시 : 2010년 4월 12일 (월) ~ 14(수), 09:00~18:00(8H)  
\*훈련 일자 : 한성공기 첨부파일 참조(성명순 및 군번으로 확인)
  - 2. 장소 : 덕릉예비군훈련장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당고개 소재)
  - 3. 훈련대상 : 한성대학교(원) 직장예비군 중 1 ~ 6년차 전원
  - 4. 행정사항  
- 신분증 필히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복장 : 규정된 예비군복장 착용  
- 09:00까지 입소, 자각할시(09:30이전 입소자) 추가교육 1시간  
- 09:30 이후 도착 시 입소불가하며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 됨  
- 문의전화 : 02-760-4176(한성대 예비군대대)  
010-5075-6553(예비군대대 : 우촌관 208호) / 02-934-8764~5(덕릉예비군훈련장)
  - 5 기타  
- 대중교통 이용 시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33번, 33-1번, 10-5 번 시내버스 승차 당고개 덕릉예비군 훈련장 입소 또는 “전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학교 예비군 수송용 용역 버스 이용 덕릉예비군훈련장 입소. 단, 학교에서 출발 희망자는 예비군수송용 용역버스 1대가 청의관 앞에서 당일 07:30 에 출발하니 이용바람. 시간 미 준수시 승차 불가 함.  
- 자가 차량 이용 시 : 삼선교 ->미아리고개 ->드림랜드 ->당고개역->덕릉예비군훈련장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예비군대대(우촌관 208호)로 방문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 지참하여 훈련에 참가할 것
- \* 단 전입신고를 미 실시한 대학교(원)예비군대원은 한성대학교 예비군대대에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람. 전입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 지지 않음.

# 중앙대, 두산그룹이 재단 인수 후 문과대 통폐합

## “취업과 돈이란 기준을 학문 평가의 잣대로 들이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기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목적인 학문 발전을 내버려둔 채 기업과 같이 수익을 쫓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중앙대학교’이다.

중앙대학교는 두산기업이 재단으로 들어 서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캠퍼스 확대를 비롯해 ‘학문단위 재조정’까지 학교 발전의 명목으로 재단에서 대학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학문단위 재조정은 결국 돈 되는 과목에 대한 투자 확대와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초학문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앙대 학문단위 일괄적 재조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의 상인 대표 임지혜 총학생회장(입어일문 4은 ‘재단이 들어온 지 2년이 다되어 간다. 학교에서는 작년 4월 말부터 TF팀을 꾸려 학문단위의 구조 개편을 하려 했다’며 ‘처음에는 본부 TF와 개별별 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듯 했지만 이는 우리의 눈을 속이는 논술에 그칠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대의 입체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학생들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발전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점이다’며 ‘또한 학문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 높고 낮음을 구분할 수 없는데, 지금 중앙대에서는 취업과 돈이란 기준으로 학문에 잣대를 들이대며 학문간 서열을 매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중앙대의 일방적인 행정에 폐과 위기



▲ 중앙대 학생들이 지난 3월 20일 토요일 학교에 나와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다.

에 처한 학생들은 대학 본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펼치고 있다.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은 특이특문, 불어불문, 일어일본학과 의 학생들로 지난 11일부터 ‘학부제 전환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중앙대 유재현 불문과 학생회장은 “지난 12월 29일에 학교에서 학문단위 재조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 학과 교수들에게 어은 학과의 전통을 없애는 사실상의 폐과조치와 다를 바 없다”며 학부제의 부당함을 밝혔다. 이어 그는 “(천막농성을 통해)학교와 대화란 소리를 얻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교무위원회에서 구조 조

막을 설치해 낮과 밤마다 돌아가며 천막 농성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교의 일방적인 조치에 다른 학우들도 (부담함을 느끼고)도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학 본부 앞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던 박기태 일어일본 학생회장은 “학교에서는 학부제를 추진하면서 학부란 이름 아래 일어일본, 아시아학부 등을 배치시킬 뿐 폐과 조치가 아니라 조장한다. 하지만 이는 여태까지 이어온 학과의 전통을 없애는 사실상의 폐과조치와 다를 바 없다”며 학부제의 부당함을 밝혔다. 이어 그는 “(천막농성을 통해)학교와 대화란 소리를 얻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교무위원회에서 구조 조

정안이 불통되길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희망과는 다르게 중앙대는 지난 23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현행 18개 단과대학, 77개 학과(부)를 10개 단과대학, 46개 학과(부), 61개 모집단위로 바꾸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지혜 총학생회장은 “사회가 변화한다고 대학의 역할까지 변화할 순 없다. 대학은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학문을 교육시켜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그 고유의 기능이 있다. 그런데 대학에서 대기업에 취업이 잘 되는 학문에만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는 엄연히 대학의 역할에 벗어난 일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의 법인화 역시 대학의 기업화로 가는 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의 법인화는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을 부추긴다. 그리고 이런 경쟁은 대학간 수익 경쟁으로 재정 확충에 목을 매달도록 만든다”며 “이는 대학으로 하여금 연구·교육 수행 능력마저도 돈벌이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은 돈벌이를 위해 서로 경쟁 중이다. 이는 대학이 더 이상 인문학,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지닌 비판적 지성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익을 위한 기능적·실용적 지식인들만 양산시키는 ‘기업’ 대학으로 변질됨을 의미한다.

박형신 기자 phstilan@hansung.ac.kr

In the field

# 공짜 대학이 있는 곳 ‘핀란드’



▲ 지난 3월 17일 열린 '경쟁없는 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포럼에서 강동훈 기자의 발언 모습이다.

‘대학을 다니며 강의교재를 구입하는 것 말고는 돈 들이 없었다.’ 이 말은 핀란드 대사의 부인 리트바 부에리스토가 한 말이다. 이처럼 핀란드 대학교는 대학 등록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동 교육체제를 중시해 등록금이 높고 교육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 대학과 자주 비교된다.

지난 3월 17일 열린 ‘경쟁없는 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포럼에서는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차이를 논하며 핀란드의 교육제도의 장점인 협동 교육, 국가지원 등이 어떻게 이뤄

지를 논했다.

김명민(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회장은 “핀란드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적은 인성, 민주 시민 능력, 도전정신 등을 배양시키는 데 있다. 때문에 핀란드의 시험은 우리처럼 암기식 시험이 아닌 각 사항이 충분히 배양됐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며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

이 구성되어 있다’고 핀란드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강동훈(레프트21)기자는 “우리나라처럼 특정 대학이 1등 대학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서열 체계가 분명하게 갈려져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명하게 갈린 대학 서열화는 사람들에게 특정 대학이 아니면 안된다는 인식을 주고 이로 인해 지나친 교육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1960년대 말부터 대중이 교육 개혁을 일으켜 아래로부터 단결한 덕분에 만들어진 것이다”며 “우리도 학생과 학부모가 단결해 교육제정을 확충해야 하는 한편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형신 기자 phstilan@hansung.ac.kr

## 사회문제로 통하다

# 빈곤, 경제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

2008년 미국경제의 위기로부터 야기된 경기침체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덩달아 한국경제의 활력도 크게 둔화되었는데, 성장엔버닝 현 상태의 유지만으로도 선방을 했다는 꾸밈이 곳곳에서 들린다. 특히 경기불황이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할 때, 빈곤층과 청년세대 혹은 여성이 느끼는 경기침체의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청년세대와 관련시켜 본다면, 작년 경기 원체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2년째 대학을 포함한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처음으로 27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159만 2000명)보다 116만 2000명(73.0%)이나 급증한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09년 10월 고용동향분석’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7.5%로 전년 동월에 비해 0.9% 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이나 구직포기자를 감안한다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더욱 높아진다.

그런데 청년실업이라는 말은 근래에 생긴

시사용어이다. 즉, 본격적인 경제대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1997년에 붙여 달린 IMF 한파 이후 생긴 신조어이다.

따라서 청년실업과 그것을 야기한 최근의 경기불황은 IMF 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효율성, 유연화, 세계화’를 모토로 전개된 당시의 처방전은 시장 논리의 무분별한 확대, 국가의 복지축소와 사회안전망 해체, 자본의 고도 금융화를 통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방과 규제철폐 그리고 자유경쟁의 시장원리를 전연화한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는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경제영역을 넘어 사회 각 분야로까지 확대시켰다. 즉, 산업부문 간, 기업규모 간, 업종 간, 고용형태 간 이윤과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의 생활영역에서도 심각한 양극화를 야기했다.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의 급속한 증대는 이러한 정황을 반영한다.

1982년 66.7%였던 중산층은 1992년

75.2%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08년 63.3%까지 하락했다. 또한 2009년 빈곤층 가구가 305만 8000가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300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이는 전년 증가분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위와 같은 사회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은 빈곤의 대물림으로 입증된다. 고용시장의 축소와 사교육시장 확대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좌우될 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약화 원인으로 고도 성장의 종료와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인한 전체 일자리 수 증가의 지체,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한 제조업 종사자 퇴출, 자영업자의 구조적인 몰락, 사교육시장의 심화와 명문대 진학 독점현상을 들었다.

최근 더욱 심화된 청년문제 역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삶의 불안과 주변화를 몸소 목격하고 체험한 청년세대들의 세대경연으로부터 연유한다. 이들에게 삶의 최대 목표는 안전한 삶의 회수가 되며, 이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불철주야 계속된다. 청

년세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스펙 쌓기’는 국도를 뒤덮을 바다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던 네덜란드인의 현대판 버전이다. 문제는 육도를 만들었던 네덜란드인의 노고와 성과가 오늘날의 청년세대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의 빈곤은 개인의 노력과 성실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변화하려는 경제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가 다. 따라서 청년실업과 같은 문제도 체제가 양산한 구조적 결과이지, 노력을 달해서 혹은 경쟁에서 밀려나서 닥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 역시 구조적 차원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즉, 자유경쟁의 시장체제와 국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현 상황에 대한 준엄한 문제 제기가 요청된다. 사회의 빈곤문제가 청년세대에게는 청년실업과 연관된다고 할 때,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역시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6·2 지방선거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성일(문화사회연구소 소장)

## 낙산만평



# 2010학년도 2학기 영어권 및 비영어권 교환학생 선발 안내

### 1. 파견기간

- 2010학년도 2학기(가을학기/Fall Semester) ~ 2011학년도 1학기(봄학기/Spring Semester)

### 2. 지원자격

- (1) 본교 두 학기 이상을 수학한 자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학기 이상 수학한 자)-영어권 본교에서 한학기 이상을 수학한 자-비영어권
- (2) 교환학생프로그램 종료 후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전이학기 이수 가능한 자 (현재 1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재학생이나 3학년 1학기를 마친 휴학생이 해당되며 현재 3학년 2학기 재학생은 귀국 후 추가학기 이수 가능한다)
- (3)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4)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5) 학부 성적 총평점평균 2.5 이상(신청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산정)-비영어권
- (6)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력이 없는 자 (지원은 가능하나, 선발시 심층 면접 예정)
  - ※ 자기소개서 첫줄에 참가 이력을 기재하기 바람
- (7) 지원대학에 본인의 전공이나 유사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 (8) 학점 및 어학성적은 아래표 참조

### 3. 파견대학

#### - 영어권

대학명	지역	자격		선발인원	연간 수업료	
		학점	IELTS			
일반교환 (Exchange)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미국)	3.0	80	6.5	2명	본교 내부
	University of Evansville (미국)	3.0	80	6.5	2명	본교 내부
방문학생 (Study Abroad)	Montclair State University (미국)	2.5	80	6.5	10명	상대교 내부
	University of Wisconsin Eau-Claire (미국)	2.5	79	6.0		
	University of Evansville (미국)	2.5	61	5.5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미국)	2.5	61	5.0			

#### - 비영어권

국가	대학명	어학 능력 조건
중국	북외대학교	공인성적 없어도 무관 (원칙적인 입학자격은 인문사회계열 HSK 6급이상, 예술공과계열 3급 이상 소지자이지만, 지대결연대학과의 협에 의해 교환학생은 비해당)
	장춘세무대학교	
	합비대학교	
	관림예술대학교동해대학교	
	허양빈정대학교	
대만	KunShan 대학교	산시대학 상무학원
일본	아이쿠치비지문화대학교	공인성적 없어도 무관 (원칙적인 입학자격은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이상 소지자이지만, 일본어 학습경력 이력서 등으로 대체 가능함)
캄보디아	Life University	공인성적 없어도 무관
태국	Chiang Mai Rajabhat University	공인성적 없어도 무관

### 4. 지원서류

- 지원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출력 제출)
- 컬러사진 1매 (지원신청서 부착용)
- 자기소개서 및 연수계획서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출력 제출)
- 학부 성적증명서 (종합정보시스템 누락성적 출력하시고 증명서 발급시 사용하지 마세요)
- 최근 2년내 취득한 어학 공인 성적 증명서 (원본 및 사본제출, 원본은 확인 후 반환)
- 교수 추천서 (첨부양식)
- 보호자 동의서 (첨부양식)
- 서약서 (첨부양식)

### 5. 선발기준

- 영어권 - 학점(30%)+어학성적(30%)+영어면접(20%)+국영문자기소개서(10%)+인성면접(10%)
- 비영어권
- 1) 1차 서류전형 (50%) : 어학공인성적, 학점, 자기소개서 및 연수계획서
- 2) 2차 시험/면접전형 (50%) : 외국어 구술/필기 시험, 일반 면접
- ※ 선발심사 방법은 지원 경쟁률에 따라 다소 유동적임.(경쟁률이 높을 경우에만 구술/필기시험)

### 6. 선발일정

- 서류 접수 : 2010년 3월 29일(월) ~ 4월 2일(금) 17시
- 면접 심사 : 2010년 4월 7일(수)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 합격자발표 : 2010년 4월 13일(화) 이후

사설

좋은 동기를 품은 출발을 위해

새내기들의 싱싱한 발걸음으로 캠퍼스에 활기가 넘친다. 강의실에 들어 서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귀를 쫓아보고 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다. 이때 이들의 가슴에 확립에 대한 열정과 방향을 제대로 심어 주어야 저 들뜬 마음이 평생을 추동할 에너지로 바뀔 것이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학교는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거시적으로 답답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성을 키워주고 창조적으로 미래에 도전할 용기와 동기를 심어주어야 한다.

필자는 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동기를 꼽는다. 지능이나 학력을 달리 능력으로 비유해보자. 예컨대 이봉주 선수는 필자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달리기 능력을 갖고 있다. 아이큐로 치자면 필자의 아이큐가 100정도고 이봉주 선수는 200 가까이 될 것이다. 만약 인생이 멀리 놓여 있는 식량을 먼저 달리기 취하면 되는 단순한 게임이라면 필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식량이 어디 있는지 필자도 이봉주 선수도 모르며 한국대가 아닌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이다. 만약 필자가 이봉주 선수보다 식량에 대한 더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면 느린 걸음이지만 평생에 걸쳐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닐 것이고 여러 가지 맛난 음식을 맛볼 기회도 더 많이 얻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식량 이외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높아질 것이다. 한마디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다. 반면 동기가 약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식량을 취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며 평생 주변을 맴돌아 아낙근수의 안목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기란 무엇이고 어떤 동기를 가져야 할까? 동기는 자기(自己)에서 시작된다. 자기애는 이기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자기의 윤리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이나 사회에 누가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기애는 장기적이고 강한 동기의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은 장기적이고 좋은 동기를 가져야 한다는 총론에 불과하다. 이제 새내기들은 각각의 적성과 사정에 맞는 각론을 찾아야 한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교수들이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함께 그 길을 찾기 위해...

빛나는 G세대, 우울한 88만원 세대

얼마전에 막을 내린 벤처부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기록으로 멋진 경기를 펼치고 당당하게 돌아온 태극전사들을 우리는 일명 G세대라 부른다. G세대는 1988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 말하며 영어 'Green'과 'Global'의 첫 글자에서 생성된 조어로 건강하고 적극적인 미래지향적이고 세계화된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G세대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울하다. 벤처부 동계올림픽에서 또래 선수들이 척척 메달을 따며 성취감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국민으로서는 부끄러워하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필자는 빛나는 G세대가 아닌 졸업 후 비정규직이나 인턴 자리라도 바라면서 취업을 걱정하는 88만원 세대이다. 주위에는 벌써 몇 년째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모두들 공통된 공식 토의 900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을 준비하며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아가며 바늘 구멍 같은 취업 기회를 엿보고 있다. G세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20대, '88만원 세대'는 G세대보다 몇 년 가량 뒤인 세대이다. 198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이들은 예민한 10대 시절에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를 말한다. 경제 침체는 구직난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들은 20대 비정규직 계층을 형성하며 이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

88만원 세대는 얼마전, 아예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그것이다. 아르바이트생, 인턴, 청년실업자, 취업준비생, 단기취업자, 비정규직 등을 망라해 '88만원 세대'가 집단적 목소리를 처음으로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20대들이 G세대, 88만원 세대라는 상반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젊은이들이 사회 구조의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잃고 꿈도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사회·경제 구조가 개혁되어 더 이상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화정

전공불문 누구라도 컴퓨터 활용 전문가가 되어야

안광준 교수 (미디어디자인전트 학부)



디자인학부 수업을 하다 보면 컴퓨터에 서툰 학생들을 의외로 많이 발견하게 된다. 디자인 계열 대학 4년간의 커리큘럼은 이미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다양한 그래픽 물에 익숙해야 하고 컴퓨터 자체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유리하다. 그렇지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미숙에 매달리다 보니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의외로 서툰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현대 디자인은 대학은 물론 졸업이후 직장까지 거의 평생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신입생들이 입학 후 컴퓨터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데 컴퓨터를 조기에 정복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졸업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에서조차 뒤처지는 학생들도 있다. 본인의 수업(타 전공 학생들도 다수 수강)에서 컴퓨터에 서툰 학생들은 그 래야만 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준비한다. 나는 여학생이니까, 나는 인문계니까, 내 전공은 컴퓨터와 거리가 있으니까, 나는 드로잉만 하니까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상 전

공을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 통용되지 않는다. 현대는 PC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진화하는 디지털 사회이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평생의 경쟁력을 좌우 한다. 그렇다고 자격증을 따라는 이야기는 아니며 실질적인 컴퓨터의 이해도, 운용과 업그레이드 능력을 말한다. 이제 컴퓨터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과 같은 필수 생활 환경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시각영상 4학년이 인터랙티브스페이스 수업이 있다. IT와 관련 있는 과목이라 초반에 컴퓨터 하드웨어와 OS의 기초, 인터페이스 진도를 나가다 보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다. 첫 시간에 폴더옵션을 열고 컴퓨터에 쌓인 찌꺼기와 액티브X, 시스템파일이나 숨김 파일을 위장하여 숨어 있는 바이러스와 악성코드들을 낚잡아 보여 준다. 백신도 잡지 못하는 최신의 것들이 매일 쌓인다. 그리고는 손으로 하나씩 잡아나가기 시작한다. 작업관리자를 불러 프로세스를 보면 실시간 구동되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 슬러이더가 오버된다. 학생들이 자

신들의 집에 가서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면 대부분 경악하게 된다. 자신의 컴퓨터의 실제적인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이 거머리 같은 상주프로그램과 악성코드들이었던 것이다. 이것들이 부팅 시부터 컴퓨터 자원의 50% 이상을 먹고 들어가며 심지어는 80%가 이를테는 장악된 경우도 있다. 아무리 고가의 컴퓨터를 들여놔도 이런 습성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다. 평생을 그렇게 보낸다면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심각한 경쟁력 손실을 누적적으로 당하게 된다. 10년간 지나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

진정 전공 불문하고 컴퓨터는 전문가가 필수로 유리하다. 더구나 앞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거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단계로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점점 더 컴퓨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요구하게 된다. 본인의 수업 과정을 거치면 학생들은 왜 그토록 포토샵과 프리미어에서 작업 중 다운이 많이 일어났던가를 깨닫게 된다. 알고 보니 내 컴퓨터는 바이러스가 주인공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신들이 매일 수없이 쏟아져 나오

는 악성코드들을 다 막아내는 못한다. 전 세계 월드와이드웹을 서핑하다 보면 수많은 악성코드들이 스며들어오며 피할 길이 없다. 결국 내 컴퓨터를 스스로 잘 알고 방어해야 한다. 만약 나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자원의 10%가 장악되었다면 하루 10%의 손실을 본다. 그것이 365일 그리고 10년이 흘러갔다고 했을 때 그 누적된 손실을 복리로 계산하면 천문학적이며 그때쯤 나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에 가있게 된다.

디자인과 악성코드의 예를 들었지만 전공 불문하고 컴퓨터 전문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재학기간 중 컴퓨터를 다루기 힘든 싸움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말고 어떻게든 초장에 친구를 만들어 평생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씬 없이 공부하고 일 데이타하여 컴퓨터 활용능력 면에서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학생들은 왜 그토록 포토샵과 프리미어에서 작업 중 다운이 많이 일어났던가를 깨닫게 된다. 알고 보니 내 컴퓨터는 바이러스가 주인공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신들이 매일 수없이 쏟아져 나오

한 줄 맺 글

사이버 강의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번 학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다는 점과 혹은 수업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해,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이한솔 (경영2)

시간제약이 없고 복습도 가능해서 편리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험때가 아니면 잘 들지도 않고 쉼이만해서 전적으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재식 (컴공4)

교수님의 목소리가 가장 평등한 공간

손진 (산공2)

시험보다는 과제위주로 편성해서 참여도를 끌어올려야 할듯

김명래 (컴공4)

오리엔테이션만큼은 오프라인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동원 (법대3)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학문에 관한 사이버 강의는 몇년 동안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목은 매해 사이버강의를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채희범 (기계3)

매번 똑같은 수업자료를 올리시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어야하는 아쉬움이남는 수업입니다.

김민연 (기계2)

온라인으로 수강하는것인만큼 아무래도 직접수업하는 것에 비하면 교육성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음질도 개선했으면 좋겠구요.

임민화 (행정4)

올해엔 잘 모르겠지만 지난해까지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보자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이버라지만 몇년씩 같은강의로 돌리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기람 (컴공3)

자유롭지만 참여도가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것이 많은 수업

'한줄맺글' 관련 게시물은 '낙산의 메아리'에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년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36호 당첨자는 천동원(법대 3)학생입니다.

독자투고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학생 유치를 했으면...

안은지 (법대 4)

현재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학생들이 다반수이다. 하지만 우리학교 내에서 외국인 학생을 찾아 보기는 힘들다. 지나가는 외국인 교수와 강사가 전부일 뿐 학부 과정을 공부하거나 어학당을 다니는 또래의 외국인 학생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 달리 사실 우리 학교에는 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 다만 그 학생들 대부분이 우리와 생김새가 비슷한 중국, 몽골 또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아시아 학생들이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든 것 뿐이다. 이렇게 어느 한 국가 학생들이 많은 것은 우리 학교가 바뀌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학생들이 많은 것을 비판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들을 무

시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나는 우리 학교가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을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에서 다양한 국가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친구들을 모집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녀들의 수다'를 보면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친구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우리 학교로 유치한다면 우리 학우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친구의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됨으로써 시야가 넓어질 것이다. 또 동시에 그동안 오해 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인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성대학교 제9기 해외봉사단(2010년 하계) 모집

- 1. 제출기간 : 2010년 3월 29일(월) ~ 4월 2일(금), 17:00까지
2. 모집인원 : 50명 이내
3.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1) 1차 선발 : 아래의 선발 기준에 의거
총점 학년 봉사실적 특기 이학 학업성적 참가신청서내용
240점 40 40 40 40 40 40
(2) 최종선발 :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인성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
4. 파견국가 : 카자흐스탄 / 네팔(예정)
\* 1차방으로 선택한 국가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파견기간 : 2010년 6월 말부터 2010년 7월 중순까지 동계 방학기간 중 약 14일 이내
6. 봉사내용 : 교육봉사 및 노력봉사
7. 모집부문
○ 공통사항 : 영어회화 가능자
● 모집부문
- 태권도 유단자
- 사물놀이 등 전통예술공연
- 최신 댄스
- 각종 악기
- 사진 촬영 및 포토샵 편집
- 동영상 촬영 및 편집
- 요리 특기(요리자격증 소지자 한)
-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
- 과학교육
- 미술(공예)

- 8. 지원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봉사단 기참자가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교내에서 운영하는 해외 관련 프로그램과 일정이 겹치는 경우 중복 참여 불가함. 특히, Hansung Success Frontier 프로그램과는 중복 참여 불가함.
9. 선발결과 발표
(1) 1차 선발자 발표 : 2010년 4월 6일(화), 17:00 한성공지 발표
(2) 면접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9일(금) 스타디움지 회의실 (면접시간 추후 공지)
(3) 최종 선발자 발표 : 2010년 4월 13일(화) 17:00 한성공지 발표
\* 면접심사 세부 일정은 한성공지를 통해 추후 발표
10. 경비부담 (봉사활동 지역 및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 학교지원 : 항공료
- 학생부담 : 55만원 내외(문화탐방비 별도)
- 문화탐방 : 문화탐방 진행여부 및 코스/기간/비용은 참가학생 자체 결정.
11. 제출서류
- 해외봉사단 참가신청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 관련 증명서 (봉사시간, 어학성적, 지원특기 관련 증명서)
12. 제출장소 : 창의관 1층 학생지원팀 (구내번호 4221~2)
13. 특전
- 봉사단원으로 출정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2010년 2학기 사회봉사 학점 1점을 인정함.(봉사학점은 최대 3학점 이내에서만 인정됨)

안녕하세요. 한성대 신문에 게재될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한성대학교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불편했다' 등 학내·외 이슈들에 대한 여러분의 주장 혹은 '한성대신문'을 읽고 느낀 점 등을 4,5매(900자) 분량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는 kmh77@hansung.ac.kr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원고는 본지 여론면에 게재됨과 동시에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성대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성대 신문사 02)760-4186

사람을 만나다

우리학교 첫 교환학생 JOHN(미국), HIROMI(일본)

“한국문화를 알기위해 한성대에 왔어요”



학교에서 들리는 외국어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학기부터 우리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JOHN씨와 HIROMI는 Northern Kentucky University와 야마구치 문화대학에서 온 우리학교의 첫 영·일 어권 학생이다.

외국인에게 비추어지는 한국인의 인상은 어떠한가? JOHN은 한국의 대학생은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이야기 한다. “취업준비로 인해 대학생활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미국도 취업이 중요하지만 대학생활을 많이 즐기는 편”이라며 “하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더욱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된다”고 말했다.

후배 관계가 엄격해 나이에 따라서 존칭을 다르게 써야하기 때문에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람들은 단일민족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출신, 직업에 따라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끼리끼리 어울리는 문화인 것 같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선을 긋고 보는 시선들이 있어 조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그들은 “학교에 미국학생, 일본학생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말을 걸어오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 했다.

기자수첩

2011년 선본위에 보내는 탄원서

지난 22일 낙산의 메아리(이하 낙메)에 ‘동아리연합회에 보내는 탄원서’란 게시글이 올라왔다. 무용과의 한 학생이 자신의 동아리 RCY가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동아리 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동아리 평가 기준을 틀어본 글이 올라온 것이다. 글쓴이는 그 글을 통해 RCY 동아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발한 것이다.

위이다. 다만 여기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글쓴이가 처음부터 이남희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논하기 위해 동아리 문제를 꺼냈다면 이남희 후보자가 선거 유세를 했을 때부터, 혹은 적어도 정책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문제를 알릴 때 먼저 동아리연합회 RCY의 문제를 지적하고, 중선관위에 이를 알려 이남희씨에 대한 후보자 자격에 대한 의의를 제기했어야 했다.



백형진 기자 phsfilan@hansung.ac.kr

대학원 인터뷰

이환정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총원우회장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비즈니스 맨



대학원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 학교 이환정(사회복지학과)총원우회장은 선량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가 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다. 총원우회장이란 딱딱한 이미지와 달리 그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라며 겸손하게 소개했다.

니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셔츠 주머니 속에는 메모가 빼곡한 명함이 몇 장이나 들어 있었다. 그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홍보하는 것만이 마케팅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일을 선택하기에 모든 일상이 곧 비즈니스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도전정신을 기르기에 이만한 일이 없다. 짧은 학생들이라면 어느 분야에서건 마케팅에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란다.”

은 아주 유망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복지와 마케팅이 결합된 따뜻한 청사진을 남몰래 그리고 있었다. 그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서전 전문 출판사 ‘도서관복산’이다. “요즘 결혼식에 가면 커다란 스크린에 부부가 된 커플의 일대기를 멋지게 꾸미곤 한다. 회갑연이나 고회연에서도 그런 스크린을 띄우면 멋진 것 같지 않은가. 뻔한 우스거나 기념타율이 대신 그 사람의 삶을 멋지게 기록한 자서전을 선물로 들리는 건 어떤가. 유망인간 자서전을 가질 수 있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조심스레 제안한다.



지구촌 불끄기, 우리학교도 함께해요! Earth Hour 시간(2월 오후 8시 30분-9시 30분)을 지난 홍보하기 위해 신민철(행정 4)학생이 제작한 입간판이 미래관에 놓여있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0년 3월 29일(월요일) ~ 4월 2일(금요일)

Table with columns for Day (입자), Part (구분), and Menu (식단). It lists daily meal plans for Monday through Friday, including items like Kimchi, Rice, and various side dishes with their prices.

\* 식자재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가로

- 1 [명사](한의학) 백작약, 속지황 따위를 넣어 달여 만드는 탕약. 피로 회복과 기혈(氣血)이 허한 것을 보충하여 주는 데 쓴다.
2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금메달리스트.
3 대한민국, 일본, 타이완에서 3월 14일에 지내는 일종의 기념일.
4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이었던 아이소포스가 지은 우화 모음집.
5 [명사] 일가루, 달걀, 버터, 우유, 설탕 따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서양 음식.
6 [명사]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7 [명사] (지리) 화산의 분화구에서 분출된 마그마. 또는 그것이 냉각된 암석.
8 (책명)조선 순조 때 정약용이 지은 계몽 도서.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 행정의 쇄신을 위해 옛 지방 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백성들을 디스하는 도리를 설명하였다.

세로

- 1 [명사] 꽃을 심어 가꾸는 그릇.
2 [명사] 이야기의 첫머리.
3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지나가는 일. 타자가 공을 친 것이나 파울 필드 이에 속한다.
4 태양에서 넷째로 가까운 행성. 공전 주기는 1.88년, 자전 주기는 24시간 37분 23초. 지름은 지구의 0.532배, 질량은 지구의 0.1074배이다. 두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5 여러서는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을 뜻하는 사자성어.
6 도봉중3학년때 중퇴. 07U-20월드컵, 08베이징올림픽을 거쳐 현재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 Bolton과 국가대표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
7 나무를 심음. 또는 그 나무. '나무 심기'로 순화.
8

정답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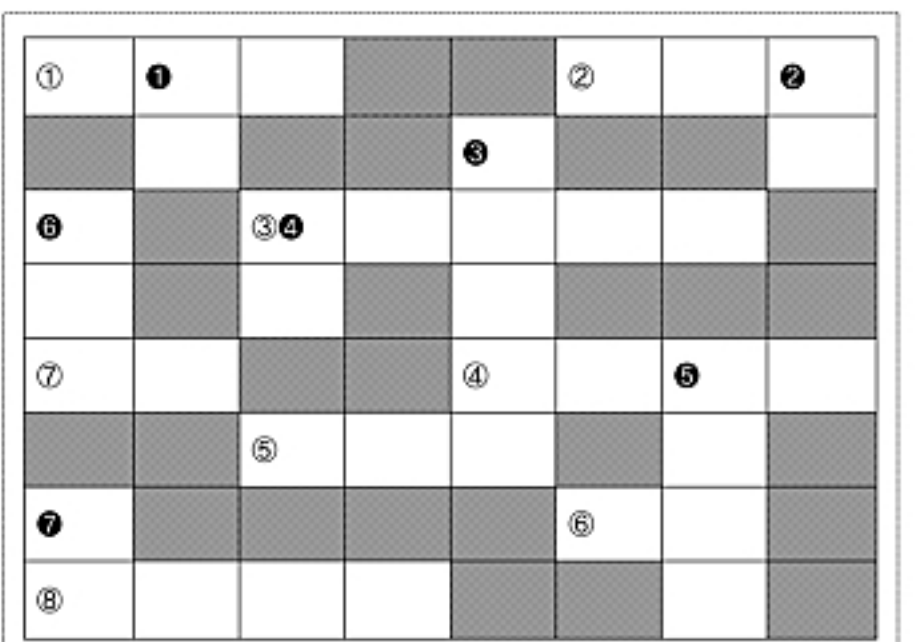
홍승익(경영 1) 010-XXXX-1753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자번호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학과(학과)

이름:

연락처



# 타인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색다른 표현 방법 '예술'

## 소설영재 그곳에 그는 없었다. (2)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는 빙판 위를 아름답게 질주하며 화려한 점프 기술을 선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김연아가 펼친 빙판 위에서 행위는 예술일까, 아닐까? 답은 예술이 아니다.



▲ 김연아 선수의 경기 모습이다.



▲ 백조와 호수의 한 장면이다.

김경자 교수와 정현이 교수는 동일하게 '일단 예술 작품을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경자 교수는 "처음 예술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고전 발레나 오페라를 보며 천천히 익혀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며 이어 "어떤 예술장르든 그 장르에 대해 전혀 모르고 가면 누구든 흥미를 느낄 수 없다. 공연을 가게 되면 작가나 작품 즐거이, 무대 구성 등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충고했다. 이어 김경자 교수는 "무용공연을 간다면 무용수가 몸으로 표현하려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무용을 마음으로 감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정현이 교수는 "예술 작품을 접하는 방법엔 특별한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좋다는 건 없다. 예술 작품의 평가에 구속받지 말고 자기의 감각을 느끼며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다. 톨스토이는 '예술 작품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예술은 오직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며 따라서 예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백희진 기자 phstiller@hansung.ac.kr

필요하다. 정현이(회화과) 교수는 이 약속을 제도화 과정이라 칭한다.

정현이 교수는 "예술이라 불리는 것들은 모두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화 과정이란 누군가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표현이 담긴 작품을 창조해내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작품을 보며 작가가 숨긴 의미를 파악하는 일을 말한다"며 "이렇게 작가로부터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받아 보는 이가 그 작품에 대해 글을 쓰고 이야기하며 사회가 그 작품에 대해 인정할 때 이는 결국 예술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고 예술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나서 예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교수는 "일반 사람들이 공책에 하는 흔자만의 낙서는 예술 활동이 아니다. 또 과거 미국 지하철의 낙서

서는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하철에 낙서된 그림들에서 사람들은 그 안에 숨겨진 사회적 의미를 보고, 지하철 낙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다"며 "이런 제도화의 과정으로 지금에 와서는 지하철에 있던 낙서는 하나의 예술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도 나중에는 예술로 인정받으며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술 작품 어떻게 감상하는냐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예술 작품에 표현한 숨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술은 그 시대의 사회적 메시지를 받아들여면서 확대·축소되며 변화하고 있다. 지금은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도 나중에는 예술로 인정받으며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술 작품 어떻게 감상하는냐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예술 작품에 표현한 숨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 역사의 위대한 거지말 1970~2010

### 백희진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사무국장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는 사건들이 있다. 예를 들면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을 들 수 있다. 수나라 군사 30만명이 벌동부대 평양성까지 쳐들어 와서 평양성을 공략 하였으나 실패를 하고 다시 후퇴를 하다가 살수에서 미리 강을 폭으로 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30만명의 수나라 군사가 강을 건널 때 폭을 터뜨려서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을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보면 정말 말이 안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는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나라이다. 그러면 수나라에서 30만 명을 지휘하는 장군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런데 전쟁력을 도하작전을 하데 한꺼번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둘째는 30만명이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으려면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아야 하는가? 이것은 폭이 아니고 오늘날의 댐의 수준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모든 중장비를 다 동원 하고도 댐을 하나 만드는데 3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고구려 시대에 댐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지도 문제이고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댐을 얼마나 빨리 쌓을 수 있을까? 오늘날의 기간에 두배만 걸린다고 봐도 5-6년 걸린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군대와 최후의 결전 장소를 살수로 보고 5-6년전부터 작업을 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이 가능할까? 자치통감에는 분명히 수나라의 병동도 30만명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가 2700명이 살아 돌아 왔다고 적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고구려가 6년전부터 전쟁을 준비 하였고 댐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으로 댐을 터뜨렸을까? 폭약은 고려시대의 최무선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그러면 고구려시대에는 무엇으로 댐을 터뜨렸을까? 결국 이렇게 말도 안되는 3가지 사실이 한꺼번에 일어나야만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은 자치통감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 분명히 존재 하였다. 하지만 폭을 막아서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도하를 할 때 폭을 터뜨려서 수나라군사들을 수장 시켰다는 사 실은 후대의 소설 밖엔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아무 한테도 의심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너무 암기과목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논리적으로 보고 논리에 합당한 것은 외워도 되겠지만 을지문덕장군의 살수대첩 같은 사건은 을지문덕 장군이 무덤속에서 벌떡 일어날 대 사건인 것이다. 하루빨리 이런 허위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수정 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우리역사의 문제점



김영연 작가

### 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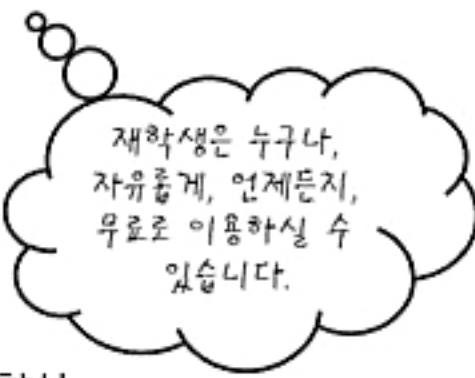
- \* 현 한성대, 인천대 강사
- \* 2001년 한성문학상 소설 당선 (바퀴)
- \* 저서: 이청준 소설의 벽 허물기 열두마당 외 다수

## <표현 능력 상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과 구성 능력 향상
3.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의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학술적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함양



###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0년 3월 15일(월) ~ 2010년 6월 11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문서, 논문, 서평 등
4. 신청 방법 :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 메뉴 이용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5. 상담 내용 : 글의 맥락 파악,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글쓰기 태도 등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 상담 진행 방법

1. 상담 진행은 상담원과 학생 간에 면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상담 신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3.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현황은 MY 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담 시간은 30분~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5. 상담 신청자 유의사항
  - 1) 상담 신청 시 홈페이지의 신청 항목에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2) 상담 전에 과제 해결에 필요한 참고 서적을 미리 읽어야 합니다.
  - 3) 상담 시 과제 준비 과정과 준비한 글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대의 그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을 가기 위한 12년 간의 긴 초·중·고등학교 생활, 제도화된 교육을 받은 그 후, 20대는 무엇을 향해 가야하는 걸까. 대부분은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일부는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 들기도 한다. 대학 진학을 선택한 다수는 약 4년이라는 유효기간을 갖지만 결국 그들은 '취업'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각종 통계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20대는 희망적이지 못하다. 통계청의 자료 2010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20~29세의 실업률은 4십만3천 명으로 2009년 2월 통계(3십4만8천 명)에 비해 5만5천명(15.8%)의 실업자가 더 생겨났다.

물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기 위해 20대는 자격증을 따고 영어공부에 전념한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변화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구직단념자는 해마다 늘어 2009년도 2월, 1십6만9천명이던 수치가 올해 2월에는 2십5만3천명으로 8만4천명(49.8%) 증가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대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불안한 미래로 인해 자신들의 꿈을 잃어가고 있는 20대를 만나 그들의 심정을 들어보는 기획을 가졌다.

편집자주-

## 막막한 20대의 탈출구, 공무원

### “사명감 대신 직업적 안정성으로 찾게 돼”

이제(대 행정학과 4학년)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안고 있는 평범한 20대 대학생 중 한 명이다.

과외를 하며 용돈을 벌고 학회 활동 외에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해 평점 4.0을 유지하며 제법 괜찮은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올해는 그런 그도 4학년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그의 목표는 물론 공무원이다.

그는 “해보고 싶은 게 많지만 고학번이 될수록 안정적인 공무원을 추구하게 된다. 처음 학교에 들어올 때는 ‘회망직업’으로 경찰을 꿈꾸었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좀 더 ‘빨리’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현실’이란 무엇일까. 다른 아닌 ‘돈’이다.

그는 “경호학과를 졸업한 친구가 있다. 졸업

하고 나서 전공 대신 다른 것을 하고 싶어 관련 자격증을 따 피부 관리실에 취직을 했다. 하지만 한 달 수입은 약 8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 강도에 비해 수입이 너무 적어 그만두고 싶지만 당장 할 일이 없어 그럴 수도 없다.”며 주변 사례를 소개했다.

그 친구 역시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고 있다. 적고 불안정한 수입으로 탄탄한 미래를 꿈꾸기 힘들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공무원 출인’도 위험성은 있다. 시험 외에 다른 대외활동에 소홀해지게 되고 그것은 낮은 스펙으로 이어져 취업문을 통과하기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학점관리, 워킹홀리데이, 봉사활동, 대학생 홍보대사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면 3·4학년 때 다른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스펙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다시 공무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기업에서도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다 포기하고 오는 걸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완벽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직업적 이점뿐 아니라 준비과정 이 다른 기업 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것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말한다.

그는 “웬만한 스펙을 쌓으려면 어학연수는 필수이며 봉사활동도 해야 하고 각종 스펙 터디 모인에도 참가해야 한다. 이렇게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드는 돈은 이에 비하면 부담이 적다. 또 적성과 관계가 없어도 평생 일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보장

된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은 적절한 대안이 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더욱 공무원 공부에 몸을 던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많은 20대들이 안정된 삶을 꿈꾸며 공무원을 지망하지만 그 목적은 개인의 사익이다. 여기에 직업적 사명감은 끼어들 틈이 없다.

그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다면 미래에도 공금 횡령, 잘못된 정책 등은 계속 될 것이다. 이는 잘못된 일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20대에겐 현실은 뒤집어 버리기엔 너무 가까이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을 꿈꾸는

### ‘청년유니온’

#### 청년유니온 대표 김영경을 만나다

“대학때부터 학자금융자를 갚느라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파트타임 학원강사와 아르바이트를 오가다가 이러한 청년 노동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바꿔보자는 생각에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에는 수도 권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한국에서도 만들어보자는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고달픈 현실을 그들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나선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년유니온이다. 국내 첫 청년노동조합을 꿈꾸는 김영경 대표는 “청년유니온은 청년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청년 실업 문제와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며 “청년실업 해결을 촉구하는 정책캠페인부터 실제 청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노동조합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노동부에 제출한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 노조의 주된 설립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보다 정치활동에 있고, 구직 중인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청년유니온 김영경 대표는 “정부가 근거도 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청년들의 단결권을 막고 있다”며 “설립신고서 반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년유니온에 소속된 회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비정규직, 구직 중인 취업준비생이 주를 이룬다. 현재 청년유니온의 회원들은 온라인회원 1천 2백명, 오프라인 조합원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청년들이 빚을 지고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장래가 불투명한 것이 당연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영경 대표는 “지금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990년대 고졸, 전문대졸과 처지가 같다. 사회 전체가 ‘다운그레이드’가 된 셈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격차가 너무 크다. 정부가 등록금 지원 대신 학자금 대출을 확대해서 많은 대졸자가 이미 빚을 안고 나오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설명한다.

김영경 대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기 둘째, 청년고용활당제와 같은 특단의 정책으로 당장의 청년실업을 완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청년개인이 열심히 취업준비하고 스펙을 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라며 “사회구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이라도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경기자 kmh77@hansuna.ac.kr

## “세상이 만들어놓은 경쟁구도에 희생되는 20대”

### 『이십대 전반전』의 저자 문수현 씨를 만나다

그는 “현재의 20대는 너무나 슬프다. 꿈이 무너질 때 느끼는 절망감과 20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십대 전반전’이라는 서울대학교 ‘교육저널’이라는 자치언론사 학생들 5명이 구성한 책은 20대가 안고있는 고민과 불안한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특히 아르바이트의 현실에 대해 “우리나라는 육체노동에 대한 차별이 심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입주들은 소위

임금미포함한다.

그 예로 아르바이트에 5분 늦고, 점심시간, 일찍 끝나서 1시간 일찍 귀가하는 것까지 휴식시간으로 포장해서 임금에 미포함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는 풍조이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입주들은 학력이 다소 낮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차별적인 인격모독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손님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요구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을 하는 손님은 아르바이트생을 모독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20대의 현실에 대해 “행복한

20대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날 정도로 길을 잃어버린 20대가 많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일 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안다고 해도 즉시 해결되거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길 수 없어도 싸워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대학교에서 학문을 자유롭게 연구한다는 관점이 아닌 타인과 차별화 되기 위한 스펙에 힘쓰고 있다.

즉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막대한 현실 앞에 내던져져 우왕좌왕하며 만들어진 틀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다.

그는 “꿈이 무엇이나는 질문은 한편으로

잔인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꿈을 저버린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다”며 “이러한 아픔이야말로 20대들이 서로 보듬어주고 공감하며 살아간다면 다음 세대에는 꿈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나”며 회망을 이야기 했다.

또한 그는 프리타라는 신조어에 대해 “빈곤층을 보는 냉담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프리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닌가? 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면 학생들은 조금은 반항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예진기자 odory11@hansung.ac.kr

“HOUSE CONCERT”

“관객의 숨소리와 연주자의 떨림을 마주하다”



“집에서 즐기는 하우스 콘서트 아시나요?”

사람들은 음악공연이라고 하면 큰 공연장에서 훌륭한 예술가의 음악을 들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은 멜로디는 잘 들릴지라도 악기의 떨림까지는 관객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작은 공간에서 연주자와 관객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는 ‘하우스 콘서트’는 이러한 공연과는 다르다. 관객들은 준비된 방식에 얽매 자유로운 자세로 음악을 즐길 수 있고 연주자들의 땀방울, 악기의 울림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하우스 콘서트는 우리학교 ‘음악의 이해’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박창수 교수의 집에서 2002년부터 열리고 있다. 공연은 격주로 진행되며 금요일 오후8시부터 시작하는데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는 “공연을 함으로써 연주자와 관객들 간의 물리적, 심리적인 거리를 좁혀주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현재는 전국 100여개의 하우스콘서트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에게는 격정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그는 ‘하우스 콘서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 공연을 상업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의 과시를 위해 공연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하우스콘서트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으로써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연이 자리잡기까지는 그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초창기에 집을 모두 오픈해 공연을 하는데 취객이나 도둑이 드는 경우도 있었고 안방에서 쉬고 있는데 관객들이 들어와 난감했던 적도 있다”고 웃음지었다. 또 “초반엔 연주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작은 장소와 개런티의 문제로 거절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연주자들에게 있어서 ‘하우스 콘서트’를 한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은 큰 메리트로 여겨지고 있다”며 “현재 2011년 공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주자들을 섭외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우스콘서트는 홍보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는 “홍보로 인해 대중들에게 음악이 조금하게 다가가기 보다는 천천히 다가가기 원한다. 음악의 뿌리부터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처음 공연을 기획한 취지와 달라지기 때문이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그는 “음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공연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공연의 또 다른 점은 공연 당일마다 공연의 연주를 간지옥음에 CD로 만든다는 점이다. 이것은 라이브의 생생함이 담겨있어 어디에도 없는 희귀한 음반이다. 실제로 공연 중에 활이 부러지는 등 연주 중에 일어나는 실수들은 라이브를 즐기는 관객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매력이다.

기자는 그를 더욱 알기 위해 청강생으로

음악의 이해 수업에 참여했다. 그는 “한국에서 음악을 바라보는 태도는 확립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음악이 발전되기도 방해받는 요소가 더 많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는 시도보다 ‘응용’에 더 능숙한 것 같다. ‘최초’라는 시도를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데 자신의 가능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쉽다. 나 또한 그런 것을 증거로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공연은 박창수 씨와 행위예술가 심철중씨의 공연이었다. 이날 공연은 초를 가운데 두고 은은한 조명 아래 관객들의 조용한 숨소리 사이에서 카

“하우스콘서트에 오면 치유되는 기분이 든다”

메라 셔터를 누르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어느새 공연은 막바지에 이르러 심철중씨가 ‘나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읊조리며 동시에 피아노 소리가 커지면서 비트가 뒤엎고 있었다. 어느새 불은 모두 꺼지고 어둠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에 관객들 모두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다. 촛불에 의지한 채 아이들은 누워서 음악을 듣기도 하는 모습이었다. 기자는 왜 어둠속에서 홀로 내던져진 기분을 느꼈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자

유로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공연 가운데 그는 연주자와 대화를 이끌면서 잠시 휴식하고 물을 마시는 모습에서 ‘리얼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날 공연을 보러 온 박성숙(주부)씨는 “2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음악을 공부하는 자녀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공연을 보러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연에 대해 “오늘의 공연은 조금 난해하지만 공연 중간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박선영(출판기획자)씨는 “박창수 씨와 책 작업을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며 “공연은 일반 관객들이 얼마나 이해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관객들이 공연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하고자 하는 열의로 비추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힘든 일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되는 느낌이 있다. 하우스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위로받는 기분이 든다”고 덧붙였다.

하우스콘서트가 처음이라면 겁먹지 않아도 된다. 하우스콘서트의 홈페이지에 공지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그냥’ 가면 된다. 그리고 선착순 입장이라 먼저 가서 앉는다면 명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관람 자세는 자유로운데, 누워서 관람하는 것도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보는 것도 모두 OK이다. 근엄한 클래식도 이 공연에서는 힘을 풀고 자유롭게 이어가고 있다. 현재의 무거운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음악과 소통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혜진기자 odory11@hansung.ac.kr



영화 읽어주는 여자

“인물의 지성을 커다란 머리로 묘사하다”

로댕 <발자크>



문인협회에서 발자크 기념비를 의뢰하여 제작하게 된 로댕은 그 소설가의 외면적 유사성보다는 자신이 느낀 발자크의 창의력, 개성, 그 은밀한 성격의 표현에 중점을 둔다. 우선 로댕은 이미 세상을 떠난 발자크의 생전 모습을 알고자 그의 발자취를 찾아 온갖 노력을 하며 초상화, 사진 자료 등을 수집했고, 그의 고향인 투르 지방에서 그 지방 사람들의 체격, 골격, 특징을 조사하

근대조각의 시조로 불리는 오귀스트 로댕(1840~1917)은 19세기와 20세기 현대조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으며, 현대미술사의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는 조각가이다. 그의 일생 동안 제작되었던 작품들은 시기마다 당시 미술계에 충격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진정성이 주류 화단에 받아들여지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치렀지만, 결국에는 그의 생전에 당대 최고 예술가로 인정받으며 큰 명예를 누렸다. 당시 조각계는 여전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상주의적 전통양식과 현실적인 인간형태를 표현하는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르네상스 조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순수한 재현이나 일관적인 서사 방식을 무너뜨린 로댕의 작품들은 당시 조각계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리스의 이상주의적 조각에서 출발하여 부단히 인체와 탐구해 온 서양조각사는 로댕에 이르러 다시 한번 격정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음악과 소통해 보는 것은 어떨까?

면서, 그의 옷을 가져가 직접 치수를 확인하는 등 그의 얼굴과 비대한 몸매, 불룩한 배 같은 체형의 특징을 잡아내고자 했다. 6년 동안 20여 점에 가까운 습작을 남기고 마침내 1897년 발자크 기념비를 위한 마지막 습작을 완성하였다. 그러는 동안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어 프랑스문인협회에서는 계약을 취소하기에 이르렀고, 로댕은 그 조각을 다음해 살롱전에 출품하였다. 이 작품이 발표되자 당시 문인협회는 물론 시민들이 그리던 발자크의 사회적 명성과 문학적 위치에 걸맞지 않은 기묘하고 비상사적인 형태로 대중들은 몹시 당황했고 로댕에게 매도와 조소를 보냈다. 그러나 한때 그의 비서였던 릴케처럼 로댕의 작품의도를 이해하고 인정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조각상의 커다란 머리는 발자크의 지성을 강조한 것이며 몸체는 발자크를 상징하는 가운데로 뒤덮인 개성적인 근대조각이 된 것으로, 이후 로댕의 인물상 가운데 최고의 경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로댕에게 작가적 명성과 비난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술가로서의 조각가’라는 작가 의식과 줄임없는 다작을 통해서 기존의 형식주의를 전복하고 예술로서의 자율성이 부여된 새로운 조각, 즉 근대조각을 이루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주현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이혜진 기자



다자이 오사무 - <인간실격>

세상과 어울리지 못했던 순수한 영혼의 고백



이 소설은 사진 세 장을 보면서 느끼는 괴기한 감정을 낭독하는 3인칭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허구화함으로써 예술적 자서전을 시

도했다. 주인공은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는 조금 낡은 사고를 가진 요조라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유년시절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익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위기일탈의 진땀 나는 서비스였습니다’ 라고 회상한다. 그는 어느 틈에 단 한마디도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성장한 요조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다. 소수한 꿈을 지녔던 그는 그곳에서 호리키라는 친구를 만나며 점차 성에 눈을 떠 쾌락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후 긴자에서 츠네코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에게서 풍기는 쓸쓸함은 요조

로 하여금 동질감을 끌어내 불안한 심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그녀는 삶에 광장히 지쳐있었다. 결국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시도를 하게 되지만, 츠네코는 죽고 요조는 살아남는다. 그 후 그는 교바시 스텐드라의 마담 곁에 머물면서 요시코라는 여자와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변심하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볼거라 생각했던 그의 신뢰심은 타인에게 인기는 그녀를 보면서 산산조각이 난다. 믿음이 무너진 그는 알코올에 손을 뻗게 되면서 의심을 거듭하게 된다. 요조는 결국 술을 마시고 수면제 다량복용으로 자살기도를 하게 되지만 실패하고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모르핀 중독까지 선을 넘어버렸던 것이다. 이런 생활을 하던 요조는 오랜 친구를 만나 요양원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그곳은 정신병원이었다.

“이젠 저는 죄인은 커녕 미치광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 단 한순간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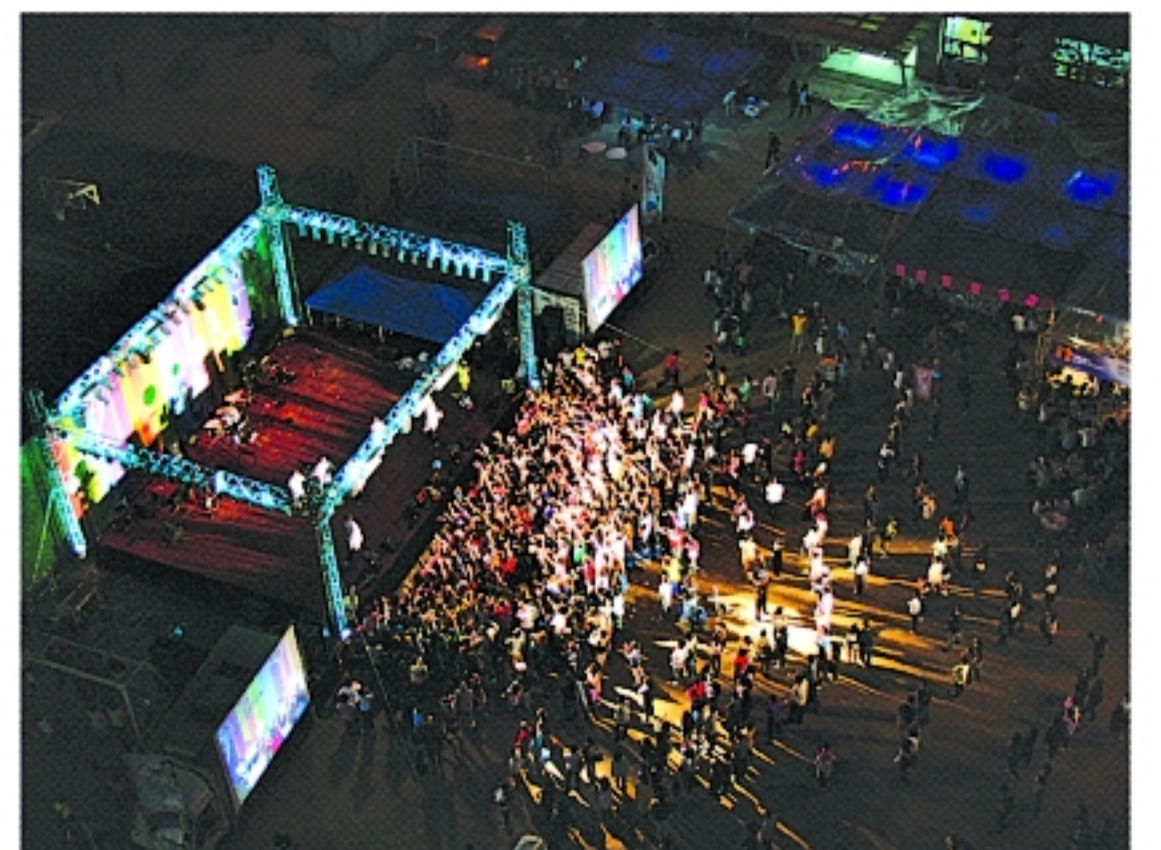
다. 아아 그렇지만 광인들은 대개 그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신에게 물었습니다. 무저항은 죄입니까?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어 풀이내면서 한없이 순수했기 때문에 메말라 가는 세상에 크나큰 상처를 입은 채 인간 실격자로 추락해 버린 삶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 그는 다섯 차례의 자살을 시도해 39세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당시 그가 살던 사회에서는 자살은 죽음으로 자유의 가치를 조명해 낸 정의로운 죽음으로 평가되며 세간에서는 죽음의 미학으로 승화되기도 했다. 현재의 시각에서 이 소설을 바라보면 그를 사회에 부적응한 실패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책은 현대인들이 끌어안고 있는 불안감, 낙담, 절망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주고 있다.

이혜진기자 odory11@hansung.ac.kr



사진이야기



이 사진은 작년 축제 장면을 위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올해는 축제를 어떤식으로 진행할지 궁금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에서 울려보았습니다.

남보라 (필터 3)